

현실(Reality, 現實).

개인이나 집단이 규정하는 현재(現在)와 물질적 환경을 지각하는 인지작용에 더해 기억과 감각으로 빚어진 마음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공상(共相)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현실( reality, 現實)을 말하고 믿고 규정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져 공동체적, 개인적 관점사이에 놓인 « 현재 »의 인상을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정립시킨다.

현실을 주제로하는 나의 작업의 흐름은 지속적관찰에 기반하며, 프로젝트들은 각각의 고유한 시각적 서술법으로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사실상 어린시절 매일의 삶을 완전한 혼란으로 넣었던, 이 세상을 인지하는관점에 대한 서로다른 방법론들을 보면서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현자들의 글들은 현실에 대한 개인관점의 주관성에 주목했지만, 그 개인들은 자신의 주관(主觀)을 감싼 집단에 의해 추구된 관점, 이상적 가치적용을 마주하면서 « 무엇이 현실인가 »에 대한 질적으로 상이한 정의들과 본능적 의견불일치를 경험해왔다.

나의 지인들이나 일상의 만남에서 가까이 상종(相從)하던 개인들은 그 주관적 자유와 통용된 가치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며 달려오는 차들을 비집거나 신호의 불빛을 따르거나 하며 제 길을 가고 있었다. 혹은, 생각으로 현실을 정의하고 자신의 삶을 매순간 정리하며, 그것이 싫던 좋던 실체라는 믿음의 반침으로 만들어 그후 몇초, 몇분, 내일이나 미래라는것을 생각하는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된다.

불변적 사고, 불변하는 믿음, 변하지않는 현재  
변화하는 사고, 변화하는 믿음, 변화하는 현재.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패턴안에서, 현실을 만든다는 것은 변화와 불변의 이분법적 나누기에서 단순히 전자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들중 더 나은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무엇보다, 인간이 사유로서 고착하지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것은 영원히 유동(流動)하며, 이 상반되는 두 지점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용돌이의 무형(無形)함 안에 존재 하는 것이라고 짐작한다.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회에서는, 모든 인지가능한 현상들, 자연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인위적 산물들, 도시가 돌아가는 구조와 추구하는 이념들이 조직의 기저층부터 현실의 재생성을 유인한다.

어떠한 현상을 마주한 개인의얼굴들은 비슷한 의견의 표정들을 찾아내고, 뭉쳐 하나가 되면서 구형 집단내의 중력을 만들어내며, 결국 그들이 추구해온 현실상(像)들을 물리적 혹은 비정형한 형태로 생산하며 실재(實在)하게 한다.

전자의 경우인 물리적 생산이라함은 일반화된 주거시스템들처럼 순수한 물질적 형태로서 인간 삶의 양태를 창조함같은 것이다 - 신체를 열린공간에서 떠받치는 고층빌딩이나 발코니, 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연주할수있도록 해주는 방음벽의 기능까지 - 당신과 이웃이 만족하고 선택한것들처럼.

후자가 언급하는 무형(無形)현실의 창조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환영(幻影), 종교적 가치관등에 잠재되어있는 집단의식의 생성, 사회공동체의 유포피아, 테크놀로지가 창조하는 가상요소들의 지각적 인식이 우리삶에 실제적 영향들을 야기하며 나타난다.

2016년 이후의 작업들(Reality series -2016)은 인류학분야에서의 리서치와 동반하여 우리가 그 간 배경이되는 공간적 세계(世界, world)로서 받아들여온 영적, 신체(물리)적, 가상적 현실이라는 세 가지 주요용어를 비교하면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상징적 도구사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각각의 세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 현실 »에 대한 개념적 분할, 인간중심적 틀썩우기에 대해 재질문하고 있다.

예상치않은 만남이나 인터뷰들은 각각의 개인에게 « 리얼리티 »이라는 것이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의미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해주었고, 한편 현실개념과 사실이라는 느낌(*realness*)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명백히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기도한다. 다시말해 인간은, 현실과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 즉 자기확신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활동도 자유로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이전의 작업들은 개별적 테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리얼리티라는 큰 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현실을 살아내는 마음의 순환에 대한 시적 해석이던지 (*Tanning People*, 2009-2018, achieve en video), 가상개념의 현실도입에 대한 장난섞인 접근 (*Leisure series*, 2015-)에서 보여지듯 초기의 작업들은 리얼리티라는 단어에대한 사회적, 의미론적으로 확장된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애매함과 광범위함에도, 리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개념은 인문학분야에서 인간본성과 직결된 질문으로서 다양한 어휘적 표현으로 사색되고 논의되어왔다.

인지된 환경으로서의 인류학적 접근에서, 의도된 세계 (*Intentional world*, Richard Shweder, *Cultural psychology - What is it?*, 1990), 다양한 문화적 현실의 설립 (*Diverse cultural constructions of reality*, Tim Ingold,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 2000) » 의 표현을 빌릴수있다.

한편, 언어나 종교적, 표상적 믿음에 기반한 현실구축을 이야기함에는, 믿음상자 (*Belief box*, Stephen Schiffer, *The things we mean*, 2003), 직관적 믿음(*Intuitive belief*; based on architecture of mind)과 반영된 믿음(*reflective belief*)의 조합이 ( Dan Sperber, *Intuitive and reflective beliefs*, 1997) 주제와 연결된다.

더 넓은 의미로서 현실은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의 말하는 논의, 다시말해 사회가 만들어내는 지식과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s), 언어와 기호들, 조직과 노동의체계, 개인의사회화등을 개괄하는 표현으로서, 현실의 사회적 구축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Peter L. Berger,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1966) » 이라는 표현으로 반동한다. 혹은, 예고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허구의 현실에서 벗어날것을 주장하는 서점 한편의 개인 영성개발에 대한 글들에서도, 상기에 열거한 학문적 접근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한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리얼리티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이 현실로 재현될수있는가?

무엇이든지.

개인인식에 따라 창조된 산물로서, 주관적 정신의 창조물로서의 « 리얼리티 » 라는 작업의 주제는 결국 각자의 « 그것 »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봄으로서 « 절대적인 사실 » 로 개인들이 믿는것과 믿어온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방을 격려하고자 함에 있다.